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광주 교사들, ‘학력격차’ 해소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광주지역 교사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력 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일동초에서는 원격수업 기간 중 상담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담임교사는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등교하도록 해 학생을 지도했다. 또 여름방학 동안 기초부진 지도 활동(4개 팀 29명)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일초 김경자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수학 학습지를 스스로 푸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김경자 교사는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웹캠과 실물 화상기를 활용한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진행했으며, 여름방학에는 학습지를 배부하고 전화로 격려했

일동초, 원격수업 기간 중 상담활동 실시·가정방문

서일초, 웹캠·실물화상기 활용 온라인 쌍방향 수업

오치초, 기초·교과학습 부진학생 위해 보충지도

문흥초, 수학 연산 학습지·배움기록장 제작 활용

다. 이런 노력으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학생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놓치지 않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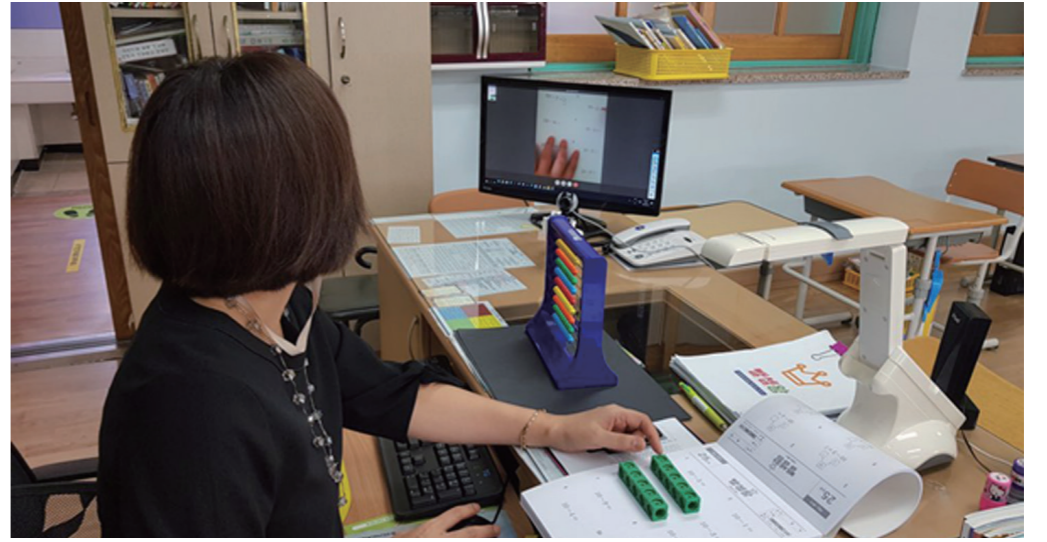
오치초에서는 기초·교과학습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교과학습 보충지도를 실시했다. 교과학습 보충지도는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면지도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1:1 또는 소인수 그룹으로 공간을 분리해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며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는 대면 지도 실시 및 학습꾸러미 배부를 통해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충지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공부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종식돼 친구들과 다 같이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흥초에서는 교직원 협의를 통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부모 동의를 받아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대면 지도하고, 온라인 프로그램 및 가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수학 연산학습지



와 온라인 학습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배움기록장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학교에서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기초학력 부진이 심화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전화 상담을 통해 개별 맞춤형으로 문제 해결을 돕거나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직접 지도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지금이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다”며 “학교마다 상황에 맞게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무안교육청-목포대,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 첫 걸음 시작

관내학교 학생 30여명 대상...멘티학교 주 2회 방문학습·정서 멘토링 활동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지난 11일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 온라인 발대식을 갖고 중학교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나눔 멘토링은 관내 희망 중학교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생 30명이 멘토로서 멘티 학교를 주 2회 방문하여 학습 및 정서 멘토링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사)복을 나누는 사람들, 목포대학교, 무안교육지원청 3기관이 MOU를 체결하고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희망

학생을 모집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프로그램을 바로 운영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의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비대면과 대면의 형식을 활용하여 2학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결정하였다.

멘토링 운영에 앞서 멘티 학생과 멘토 학생들의 만남을 위해 온라인 발대식을 갖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멘티 대표로서 멘티 선서에 참여한 무안북중 김OO 학생은 “멘토와 함께할 시간이 기대되며, 시간시간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안 지역의 학생들에게 꿈이 있는 더 나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는 물론 공공 기관들과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하였다.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복을 나누는 사람들과 한양대학교,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에서 1, 2기가 운영되었고, 2020년 3기는 목포대학교, 무안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20년 9월 14일 시작으로 12월까지 진행되고, 관계 기관에서는 2021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보성교육청, 신규임용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

필수직무능력 습득하여 빠른 실무적응에 도움 위해



보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관내 신규 지방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신규 임용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새내기 지방공무원이 창의성과 비전을 갖춘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수직무능력을 습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오전에는 시보공무원 제도, 복무, 보안 및 청

렴 교육행정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오후에는 학교회계 세입·세출 및 물품·재산·급여 업무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강의

를 진행하였다. 강의는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들이 맡았으며, 각자 자신의 업무 분야의 내용을 신규 지방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특히 학교에 근무하는 신규 직원은 인근 학교의 실무자와 1대1 맞춤형 현장실습 연수도 진행할 예정으로 경력자가 신규 직원에 대해 실무적으로 도움을 주며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규직원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보성=김택순기자

영광교육청, 비대면 ‘영광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실시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허호)은 지난 11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영상실사로 '2020. 영광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영광교육지원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이중언어(부모 모국어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한 언어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매년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초·중등 11명의

학생으로 부터 한국어와 함께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나라 5개국의 언어로 가족소개, 나의 꿈과 미래, 문화의 다양성 등을 발표한 영상을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대회에 제출할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중언어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장점을 통해 자신이 가치있고 특별한 존재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으며, 제출된 영상 속에는



어머니와 발표대본과 의상 및 음악등을 함께 준비한 손길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교육청 청렴 확산 위한 청렴 활동 시동

무안교육지원청은 신임 교육장 부임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연말까지 교육지원청부터 시작하는 ‘청렴을 배달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한다.

‘청렴을 배달합니다’는 상호존중과 소통하는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교직원들이 청렴 피켓을 들고 자유롭게 청렴을 표현하는 사진과 청렴 의지를 다지는 방식으로 교육지원청부터 관내 학교까지 차례대로 이어지는 캠페인이다.

교육지원청에서 청렴 피켓이 학교로 배달되면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창의적으로 청렴을 표현하는 사진을 찍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청렴 다짐 7계명 서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의를 한다. 또한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생과 학부모 등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창의·독특·기발한 청렴을 배달합니다’ 사진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무안=이기성기자

